

기획

바람따라 유랑하며 힌두신 전파... '노래하는 성자들'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17)

3부 인도편 1 '바울'

“신앙이 없는 인간은 불행하다.
네게 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람이 신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신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믿는다”



인도 동부 웨스트 벵갈 지역 주도 끝가따에서 130여km 떨어진 산티니케탄 상설시장에서 벵갈지방에만 있는 소규모 집시 부족 바울이 전통악기를 이용해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인도 산티니케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매년 12월 산티니케탄 인근 주민들이 손수 만든 물건들을 내놓고 판매하는 '포쉬메라축제' 현장.

인도 산티니케탄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내 가슴속의 황금공전을 놓치지 않을거야. 신의 집인 공전을 안 핏길거야. 가슴속에 있는 신앙심은 못 버려. 인생이 허무하지않아. 난 절대 안놓쳐”

인도 동부 웨스트벵갈주의 주도 끝가따에서 130여km 떨어진 작은 대학도시 산티니케탄. 아시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1901년 아리쉬합학교를 세운 이곳에서 6명의 '바울'(baul) 패거리로 만났다.

도심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의 한적한 숲 속에서 열린 토요일마다 바울이 등장하자 조용했던 분위기는 금세 바뀌었다. 벵갈 지방에만 있는 소규모 따돌이부족인 바울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 동시에 힌두신들의 역사를 입으로 전하는 노래꾼들이다.

상징인 옷감을 기운 듯한 누더기옷차림에 공우르(종)를 발에 끼우고 기타를 닮은 도파라와 해금과 비슷한 악타라, 장고처럼 생긴 빠우와즈와 따블라를 성구로 이용해 신을 찬양한다.

우리로 치자면 작은 유랑극단이라 할 수 있는 데, 신을 노래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면서도 나머지 시간을 그들의 아쉬움에서 명상과 금욕으로 채우는 성자들이다.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전해온 이들의 역사를 따지자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의 집시와 바울의 조상이 유전자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방향의 피가 짙다.

“뜨위누트 모아뿌리라는 성자가 있었다. 크리슈나신을 숭배하던 그가 신에 대한 찬양가를 만들어 퍼뜨렸고, 뒤따르던 무리가 바울의 시조가 됐다. 산티니케탄에 온 바울 패거리의 리더 도론 캅

500년 역사 벵갈지방에만 있는 집시 부족

춤과 노래로 신 찬양하며 사람들과 교감

공연의 명상·금욕생활하며 '수행자의 삶'

바(46)는 '호리볼'(호리신의 이름으로 인사를)이라고 인사를 뒤 바울에 대해 소개했다.

15살 무렵부터 그룹을 따라 선조의 노래를 입에 읊던 그는 유럽에서 공연 요청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바울 중 한명이다. 특이한 것은 힌두의 신을 숭배하면서도 지금의 바울이 섬기는 신은 '우리 모두'라는 것. 그는 "신앙이 없는 인간은 불행하다. 내게 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람이 신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신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믿는다"고 했다. 특정 신을 찬양하던 과거와 다소 변했다지만 신의 숫자만 10만이라는 인도에서 이웃을 신으로 섬긴다면 어쩌다.

바울들이 흥겹게 악기를 연주하자 바울을 원형으로 돌리란 주민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췄고, 사이사이 구경꾼들은 바울의 음악에 몸을 맡겼다. 흥겨움이 시장을 잠악하면서 신분이 다른 주민들이 떼지어 바울과 어울렸다.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계급이 실존적인 인도에서 이 작은 무대는 집시나마 '출신'을 뛰어넘는 '화합의 장'이 된다. 단골 레퍼토리인 '라리구끼'(라롱

의 노래)는 이럴 때 청중을 휘어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강물이 짙은 물 위에 마야(산스크리트어로 신기루)의 보트가 왜 떠다니는지 너희는 이해 못 할거야" 같은 어려운 시구로 '맛없는 인생'을 읊은 뒤 "우리는 하나다"고 노래한다.

바울이 '사람이 신이고, 사람은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인도 국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리아인이나 드라비디안이 아닌 소규모 부족으로서, 낮은 신분으로 억압과 핍박속에 살아온 한을 풀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힌두교를 믿는 힌디이면서도 힌두의 카스트 제도를 없애자는 개혁 의식도 있다.

도론 캅바는 "카스트는 구루(승)가 사람의 성향을 보고 사제나 무사, 일꾼 등으로 점지해준 것인데 세속화되어 계급으로 변질됐다"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카스트 제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인본주의 철학과 맞물려 이들의 노래를 청하는 대중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벵갈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는 곳은 대부분 그들의 놀이터가 된다. 벵갈의 주민들은 생일이냐 결혼식이 되면 바울을 가장 먼저 초대하고, 바울의 신에 대한 찬가가 들려야 비로소 축제의 문을 연다.

산티니케탄 비슈와바라티 대학의 사브즈쿨리 선(56) 철학과 교수는 "제도도 희미해져가긴 하지만 차별속에서 살아온 낮은 카스트의 인도인들이 바울의 노래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며 "신을 숭배하되 그 신이 만든 카스트를 해체하는 것도 인도사회의 특징인 다원성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롯데마트 월드점 062)523-4300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 228-6644

무안출발 북경 특급호텔/5대읍선 포함

북경/만리장성+부국해저* 4/5일

정통! 349,000 원부터

무안출발 상해 특급호텔/5대특시

상해/항주+서호의 밤* 4일

추천! 349,000 원부터

오남권출발 일본 동경/후지산 실속투어 상품

동경/후지산* 4일

초특급 HIT! 899,000 원

무안출발 방콕 특급호텔/5대읍선 포함

태국/방콕/파타야* 5일

관광 849,000 원부터

골프 899,000 원부터

<p>유럽</p> <p>홍콩 12/28(금) CJ오쇼핑 방영 상품</p> <p>A380탑승 두바이관광 후쿠오카 골드호텔 탑승</p> <p>진입특급 이집트완전일주 10일</p> <p>1,990,000 원부터</p> <p>터키 완전일주 8일/9일</p> <p>1,390,000 원부터</p> <p>인도 완전일주 8일</p> <p>129 원부터</p>	<p>서유럽 6개국 정통1급+윙프라이우 12일</p> <p>2,990,000 원부터</p> <p>동유럽 3/4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9일</p> <p>2,590,000 원부터</p> <p>아프리카 6개국 세렝게티 15일</p> <p>7,290,000 원부터</p> <p>중남미 8개국 100% 출발항공 21일</p> <p>1,040,000 원부터</p>	<p>동남아</p> <p>어메이징 타이랜드로 초대!!</p> <p>가족여행최고 푸켓 코카이스 스노쿨링 5일/6일</p> <p>899,000 원부터</p> <p>베트남 캄보디아 6일 999,000 원부터</p> <p>싱가폴 배낭 조호바루 6일 919,000 원부터</p> <p>발리 베리힐즈 풀라바 5일 1,199,000 원부터</p>	<p>중국/괘사이판</p> <p>장사 장가게 원가계 4일/5일/6일</p> <p>379,000 원부터</p> <p>핵심관광+정5특급호텔숙박 대만 회선 4일</p> <p>489,000 원부터</p> <p>괘/사이판</p> <p>사이판/괘PIC 골드 아보리안 4일/5일</p> <p>1,099,000 원부터</p>	<p>미주/남태평양</p> <p>추천호텔 BIG3 힐튼/메리엇/하얏트호텔 6일</p> <p>1,690,000 원부터</p> <p>미서부 6일 원전일주</p> <p>1,990,000 원부터</p> <p>호주 골드코스트 시드니 6일</p> <p>1,990,000 원부터</p>	<p>SIT</p> <p>태국 치앙마이동계 골프 5일/6일</p> <p>1,099,000 원부터</p> <p>필리핀 클락삼색 골프 54홀 5일</p> <p>1,749,000 원부터</p> <p>일본 미야지카골프 72홀 유류+카트포함 4일</p> <p>1,299,000 원부터</p>
--	--	--	--	---	--

광주점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안점, 동성점,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